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명망높은 동포활동가

1
주체111(2022)
루계 제389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제389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차 례

주체111(2022)년 1월호

표지: 경축의 축포

조국의 존엄인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는 평양의 밤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연해연방 터져오른다.

새해에도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갈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눈부신 불의 세계가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본사기자 김성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 · · · · · · 2

새해를 축하합니다 · · · · · · · · · · · · 16

그이의 1월 · · · · · · · · · · · · · · · · 17

천지개벽된 산간문화도시 · · · · · · · · · 18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하시며 · · · · · · · · 26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 · · · · · · · 32

복받은 대지에서 사는 사람들 · · · · · ·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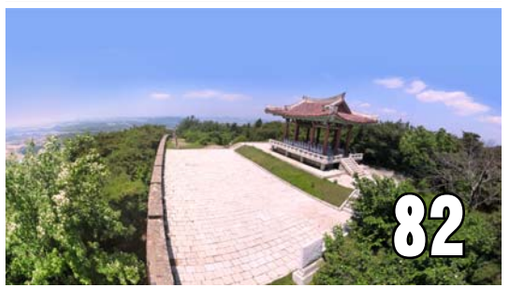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 · · · · · · · · · · 38

일심단결은 조선의 국력 · · · · · · · · · · 4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남만으로 · · · · · · · · · · · · · · · · · 50

주체철학이 제기한 근본문제 · · · · · · · · 52

사회적시책, 그 크기는 얼마인가 · · · · · · 53



기술혁신과 재자원화를 추진하여 · · · · · · 54

전력증산에 박차를 · · · · · · · · · · · · · 58

청년, 그 이름 어디서나 · · · · · · · · · · · 60

초음파의 응용범위를 넓혀가는 연구사들 · · 64

식당배 《대동강》호에 올라 · · · · · · · · 66

민족과 운명
명망높은 동포활동가 · · · · · · · · · · · 70

조국의 품에 안겨
조선약학의 력사를 파헤쳐 · · · · · · · · 76

지명유래
자강도의 일부 지명들 (2) · · · · · · · · 78

야 화
회초리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 · · · · · · 79

민족의 향기
옛탑이 주는 여운 · · · · · · · · · · · · · 80

대성산의 력사유적들 · · · · · · · · · · · 82

상 식
온도변화에 따르는 맛 · · · · · · · · · · · 77
도서 《고려사》 · · · · · · · · · · · · · · 81

유모아
건망증 · · · · · · · · · · · · · · · · · · 79

편집: 최은혁
ㄱ-2180261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속에 위대한 투쟁의 해를 총화하고 새로운 발전지침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 4 차 전 원 회 의 가 주체110(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전략사상과 실천강령을 받들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다음단계의 투쟁에로 신심드높이 이행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상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사회주의 새 승리의 표대를 세워주시고 온 한해 정력적인 령도활동으로 국가부흥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 해당 중요부문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기본목적과 그 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인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한해한해의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발전적단계에 있어서나 우리 당과 국가의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대단히 관건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모두는 올해 사업 못지 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있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예측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것들을 잘 알고 우리의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욱 명확히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지금의 대내외형세를 정확히 리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겨디뎌야만 실제적인 발전적변화로써 다음단계의 투쟁에로 이행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랭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우리의 더 큰 발전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자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혁명발전의 커다란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값비싼 교훈과 헌신의 노력이 응축되여있고 비상한 책임감과 분발력으로 충만되여있는 올해의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장려하고 증폭시켜야 하며 새년도 계획토의에서 무거운 책임성과 최대의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더 큰 성공과 승리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와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데 대하여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6.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토의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제기한 보고와 부문별토론들을 청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해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시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는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에서 내세운 총적인 목표와 지향은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것이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포치하고 추진하면서 계획작성에서부터 발전지향성과 견인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으며 일군들을 제때에 각성분발시키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였다.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였다.

중요한것은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 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것이며 이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인민들앞에 내놓은 주목되는 성과는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한것이다.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여 또 하나의 대건축군이 일떠선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는 전망, 그 첫 실체를 보여준 경이적인 기적이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국의 지방들을 개변시키는 장기적인 대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 리상적인 본보기, 산 경험을 가지게 되였다.

검덕지구 5, 000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였으며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건설을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들에서 새로운 건축형식이 도입되고 새로운 착상들이 창조되여 우리의 건축이 한단계 도약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계속 개화발전하고있음을 립증하였다.

인민경제의 동력보장을 맡은 전력, 석탄공업부문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전반을 활기차게 견인하고 건재공업부문과 기계, 채취, 림업, 륙해운, 철도운수부문에서 국가적건설과 생산적앙양을 안받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수행에서 진일보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

경제부문에서 계획규률이 확립되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기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경제와 국가사업을 더 강력히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인 생활, 사회주의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전인민적인 공통된 사상의식이 보다 강렬해져 집단주의의 위력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우세하게 발현되고 당의 조직규률강화, 당결정집행을 비롯한 당풍확립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화되였으며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질서가 강화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담보하는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되였다.

국방공업부문에서 자기의 정확한 발전계획에 따라 첨단무기체계들을 련속 개발해내면서 우리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크게 과시한것은 올해 성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대회가 열린 올해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덕, 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난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기세가 매우 앙양된것은 괄목할만한 정치적성과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의 투쟁성과를 평가하면

서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있는것, 이것이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이며 이 과정이 곧 전면적국가발전을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있는 전진과정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사업에서 당당히 자부할만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전체 인민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려는 충성의 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들고일어나 모든 곤난을 인내하며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견인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인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결론에서는 올해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 그 해결방책들이 상세히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투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다음해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기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부문에서는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총집중하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다음해 기간공업부문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정책적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세련시키고 원료와 연료, 자재보장을 따라세워 철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며 능력확장과 현대화를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새로 조성한 비료생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을 활성화하여 경공업과 제약공업원료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상공사를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당면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동력기지건설을 다그치며 다양한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탐사를 앞세우고 교속도굴진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탄밭을 늘이며 선진적인 채탄방법과 기계수단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장성시키는 한편 유연탄광들의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교통운수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워 나라의 수송사업을 단계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의 정비보강계획수행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륜전기계와 전기기계, 건설기계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제시되였다.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농사에 힘을 집중하고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농업부문에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알곡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밀, 보리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기본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켜 2022년도에 계획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야 하며 식료가공기술을 보다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인민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생산을 늘이고 양어와 양식을 잘하는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채취공업과 림업, 정보산업 등 다른 부문들에서도 자기 부문 사업을 실지 전진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국토관리와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철저히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를 년중 꾸준히 진행하며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거리와 마을들에 원림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데 대한 과업들이 상세히 언급되였다.

또한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화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을 정규화, 규범화의 궤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사업을 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추동할데 대한 중요과업들이 제시되였다.

현시기 과학부문의 중점과제는 경제분야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사업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는것이다.

과학연구단위들에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기술개발과 완성을 기본과제로 선정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배양, 육성하는 사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워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우리의 교육을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들을 참다운 혁명인재, 유능한 창조형의 인재, 사회주의후비대로 키우는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재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국방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핵심, 견인기가 될수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지방과 농촌의 교원대렬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려야 한다.

다음해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을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구축하는것으로 정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상관점과 창작태도, 창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문예활동에서 정치성과 시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새세대 문예인후비육성에 품을 들여 그들이 창작창조활동에서 주류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출판보도부문과 체육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선진수준에 올라서기 위한 대담한 개척과 활력있는 도약을 지향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양식과 도덕기풍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본이고 그 진보와 발전의 힘있는 활력소라고 하시면서 날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인민고유의 미덕, 미풍이 사회적기풍, 국풍으로 공고화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결론은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다시금 지

적하였다.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력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

결론에서는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질서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과업,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방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며 훈련제일주의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동원준비, 강철같은 군기확립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혁명을 일으켜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 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한다.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당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어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며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것이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리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며 간부대렬을 순결하게, 견실하게 다져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책임일군들은 자기 단위와 지방의 면모를 개변시킬수 있게 발전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목적의식적으로 근기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과감하게 전개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대 결사전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난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억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올해와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파감한 진군기세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다음해를 조국청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휘황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위대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다음단계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향도적투쟁방침으로, 전진과 혁신의 실천적무기로 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조국번영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긍지높이 총화하고 국가부흥의 새로운 지침을 명시한 **김정은**동지의 결론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당겨오기 위한 2022년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실천강령이며 필승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창당 첫시기부터 농촌문제를 중시하여온 우리 당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행정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현시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오늘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은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당 제8차대회는 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이라고 하시였다.

보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며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이고 그 승리를 위한 관건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모두를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앞으로 10년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생산목표를 밝히시였다.

보고는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

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다.

이 계획의 성과적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과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농촌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모든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농업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면에서나 기술지식과 문화생활면에서 근본적으로 개명시킬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력사와 현 실태가 잘 보여주고있다.

보고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농촌의 3대혁명수행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의 목적은 농업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우리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자는데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 혁명의 년대들에 배출된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 당과 국가, 제도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체득시키며 집단주의가 사상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게 하는것과 함께 로동에 성실하고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교양하는데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보고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될뿐 아니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할 때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으며 새시대의 농촌진흥을 가속화할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들의 핵심적역할에 의거하여 농장의 기술력을 더욱 증대시키며 농촌에서 과학기술을 멀리하고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고향과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도 활발히 벌리며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여 우리 농촌에 웃음과 랑만, 화목한 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농촌의 교육과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하여 농촌문화혁명을 추동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을 농촌문제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보고는 인민들이 제일 해결을 기다리는 이 절실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일관하게 들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인 발전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당이 중시하는것은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것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고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며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것과 함께 밀가공능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

당면하여 농장들에서 밀농사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을 세밀하게 작전하고 국가적으로 다수확종자와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

보고는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열풍을 다시한번 고조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저수확지들을 개량하여 옥토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힘있게 전개하며 벌방지대나 중, 산간지대 할것없이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보고는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것을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언급하였다.

현존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축산발전에 유리한 군들을 축산군으로 전환시켜 고기와 알, 젖생산량을 대폭 장성시키며 우량한 과일품종들을 널리 퍼치고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과 여러가지 과일가공품들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남새밭관수체계를 환원복구하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을 도처에 건설하며 버섯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공예작물재배에도 힘을 넣어 당원료와 기름원료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서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농업부문 대학들이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 생산성을 제고할뿐 아니라 농장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고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영농기술과 방법을 연구할데 대한 문제, 모든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첨단화하고 쟁쟁한 농업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할데 대한 문제, 농장, 작업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과 영농방법이 제때에 보급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보고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업생산의 지속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원칙적요구를 강조하고 나라의 농업생산전반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현실적인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지도일군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부문의 고질적인 허풍을 없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들과 대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목적지향성있게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들과 련관단위들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몫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정형이 상세히 분석되고 근본적인 해결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였다.

그 어떤 가물과 큰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나라의 관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며 농촌에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료들과 효능높은 농약들을 충분히 공급하며 현대적인 전력설비와 전기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 농촌의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향상시키며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놓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앞당기기 위해 현존농기계공장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의 구상은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요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완전히 일신시키는것이라고 언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특별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주요영농시기에 력량과 수단을 기동성있게 동원하는것을 정례화, 의무화하며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방조하고 생산열의도 북돋아줄수 있게 경공업부문과 상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정상적으로 많이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에서 경영활동을 하고있는 협동농장들의 전반적인 재정실태를 세세히 분석하시고 우리 농촌이 제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

이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인민이 바라고 환호하는 인민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사업이며 사회의 진보와 부흥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는 력사적인 사업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의 생활문화환경을 변모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문명한 전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할데 대하여서와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출데 대한 과업, 농촌건설에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데 대한 과업,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건설에 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견지하여 농촌건설에서 독창성과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나라의 경제사업이 아직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이 나서고있는 때에 전국의 농촌들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중대조치들은 당과 국가의 혁명적인 농촌건설정책의 발현인 동시에 수백만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커다란 혜택으로, 배려로 된다.

력사적인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농촌리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이 당의 농촌건설정책, 지방건설정책에 철저히 준하여 농촌발전,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작전과 설계를 바로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집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리당위원회들이 당의 기본전투부대, 기백있고 전투력있는 집단이 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을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고 견인하며 리당비서들의 수준과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전당적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의 집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대책하는 체계를 세워 농촌건설강령이 해마다 위대한 변혁적실체로 전환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고 가장 옳바른 농촌건설강령이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과 애국적열정이 있는한 나라의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한 력사적인 사업에서 필연코 승리가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새 세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친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투로써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렬한 의지와 결심의 표출이다.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심화발전으로서 농촌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다그치고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중대한 변혁적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문헌으로 된다.

전원회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과 력사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다음해의 투쟁과업과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3일간 진행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초안작성소조에서 종합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에 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당규약수정안이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당규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데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고 총화사업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5일간에 걸쳐 혁명적열의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자기사업을 끌마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위대한 당의 불패의 향도따라 희망찬 새해 2022년을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의 개시를 선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력사적인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것이다.

* * *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여러분, 새해 주체111(2022)년을 축하합니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는 동포여러분께 새해의 첫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조국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하여 당 및 국가적인 정치행사소식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소식이 실린 잡지를 애독하여주신 독자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함께 보냅니다.

새해의 첫호를 편집하는 우리는 여러분의 정다운 모습들을 가슴속에 다시한번 뜨겁게 안아보고있습니다.

새해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기쁨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시각 왜서인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로세대 동포들의 머리에 흰서리를 더 얹어주게 될 시간을 붙잡고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포들은 수십년전부터 일신의 안일과 향락, 가정의 행복을 뒤에 놓고 온넋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하여온 애국자들입니다.

한평생 자기의 운명을 조국에 의탁하고 헌신적인 생을 이어오신 로세대 동포들이 비록 육체는 로쇠해질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으로 살며 로당익장하여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는 새세대 동포들의 참모습도 우리는 그려봅니다.

몸은 비록 대양과 대륙을 넘어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조국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번영을 위한 소중한 사업들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동포들모두를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잡지 《금수강산》에 담아가며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드리는데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민족성을 지켜나가며 동포사회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고계시는 동포들의 소행을 적극 찾아 지면에 실을것입니다.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세계를 휩쓸고있는 악성전염병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끄떡없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하여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짚고있는 조국인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동포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가고 해가 흘러도 진함을 모를것입니다.

아울러 이해에도 잡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새롭게 하여 동포사회에 맥동을 더해주려는 우리 편집부에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해주기 바랍니다.

보다 희망차고 더 아름다울 새해를 맞으며 동포여러분의 가정들에도 기쁨만이 차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모두가 건강하신 몸으로 동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그 이 의 1 월

첫시작의 방향각에 따라 종착점이 결정된다.

주체101(2012)년 1월 세계의 각광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조선에서 궤도의 《탈선》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나름의 추측때문이였다.

그러한 속에 그해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1면에는 노래 《조선의 힘》이 대서특필로 실리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선대수령들의 뜻을 계승하여 반드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의 반영이였다.

신문과 방송들에는 정초부터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이 련이어 실리였다. 새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방문,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관람, 조선인민군 공군 제354군부대 시찰,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슬픔에 잠긴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이의 발걸음은 년중 제일 추운 1월의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조국땅 많은 곳에 새겨져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그이께서는 군인들에게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더욱 깊이 심어주시고 인민의 운명수호전에 함께 나선 전우가 되시여 군인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리고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로동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새해 진군길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자고 고무해주시였다.

당시 중국의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AP통신 등 세계각국의 대중보도매체들은 그이의 모습을 전하며 《**김정은**령도자는 뜻도 모습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그대로이시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방식의 특징은 시작부터 공격전인것이다.》 등으로 보도하였다.

새해 첫 진군길을 진두에서 힘있게 이끄시는 그이의 령도따라 그해 조국에서는 나라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책동속에서도 창전거리, 단천항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비단 그해에만 펼쳐진것이 아니다.

주체105(2016)년 1월 1일 그이께서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그날 준공테프를 끊으신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이것은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시고 과학의 위력으로 인민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시려는 그이의 웅략이 깃든 말씀이였다.

그렇게 펼쳐진 주체105(2016)년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고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련이어 마련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민의 행복, 이것이 새해에 들어설 때마다 그이의 발걸음을 재촉케 하는 인자이다.

주체104(2015)년 1월이 주목된다.

그때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당시)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새해벽두에 인민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렇게 흘러온 지난 10년간 그이께서 1월들에 찾으신 단위는 수없이 많다.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산구두공장, 려명거리 건설장, 국가과학원, 평양교원대학, 평양제약공장,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정녕 이런 날들이 모여 해를 이루고 이런 해가 거듭되여 조국은 그이의 령도밑에 비약과 전진의 력사를 수놓으며 자기의 년대들을 빛내이는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진행된 지난해 1월 그이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에서 자신께서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진정 그이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천지개벽된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0(2021)년 11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이 솟아있는 력사의 땅 삼지연시가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로 눈부시게 일떠섰다.

주체108(2019)년에는 삼지연군(당시)의 소재지가 황홀한 새 모습을 펼치더니 그로부터 2년후에는 시안의 여러 지구들과 농장들이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변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봇나무거리를 중심으로 한폭의 그림처럼 솟구쳐오른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이 각이한 모양새를 자랑하며 다채로운 건축군을 이룬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교양구획과 살림집구획, 상업봉사구획을 비롯한 여러 구획으로 형성된 소재지의 모든 건축물들은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여 볼수록 감탄이 터져나온다.

지난해 3단계공사가 결속됨으로써 삼지연시는 깊고깊은 산간마을들까지 새 모습을 펼친 거대한 리상촌으로 되였다.

백두산기슭의 첫 동네라고 할수 있는 신무성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삼리, 보서리, 소백산리, 통신리, 흥계수리를 비롯한 삼지연시의 모든 동, 리들이 일시에 완전히 변모되였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리명수폭포가 절경을 펼친 리명수골안에는 협곡을 따라가면서 2층, 3층짜리 소층살림집들과 다락식살림집들이 특색있게 솟아오르고 민속려관, 국수집을 비롯한 민족적형식의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여 절경을 이루고있다.

리문화회관이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소재지마을과 함께 여러 작업반들이 모두 새로 꾸려

진 중흥농장지구의 천지개벽도 놀라웁지만 웅건하게 솟아있는 포태산을 배경으로 일떠선 무려 1 100여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포태동지구의 전경도 장관이다.

불과 몇세대의 평범한 산골마을사람들이 살고있는 5호물동동의 맨 마지막 마을에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집들이 일떠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삼지연시건설이 진행된 지난 수년간은 조국이 최악의 시련을 뚫고헤친 간고한 날과 달의 련속이였다.

남들같으면 단 며칠도 견디여내지 못하였을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삼지연시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제1페지가 새겨져있고 우리 인

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땅에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 사회주의리상향을 펼쳐놓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의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시건설의 큰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삼지연땅에 인민의 리상도시를 일떠세워주시려고 그이께서는 사색과 로고의 날과 달들을 바쳐오시였다.

주체106(2017)년 12월 3일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며 삼지연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봄에도 오시고 여름에도 오시였고 마가을의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도, 눈내리는 겨울에도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어떤 해에는 무

려 수차례나 찾고찾으시며 삼지연땅을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시였다.

지난해 11월중순 삼지연시건설사업이 결속되는것과 관련하여 삼지연시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3단계로 건설한 백두산밀영동지구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건설대상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지금 밖에서는 찬바람이 기승을 부려도 따뜻한 새집의 창가에서 행복의 꿈을 꾸는 삼지연시인민들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감사의 정이 물결치고있다.

삼지연시 포태동사무소 사무장 황영국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처럼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눈물에 겨워 말하였다.

온 삼지연시가 잠들지 못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홍광남, 홍정혁

인민의 복리를 우선시하시며

세계의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분》,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분》, 《인민사랑의 최고화신》 등으로 호칭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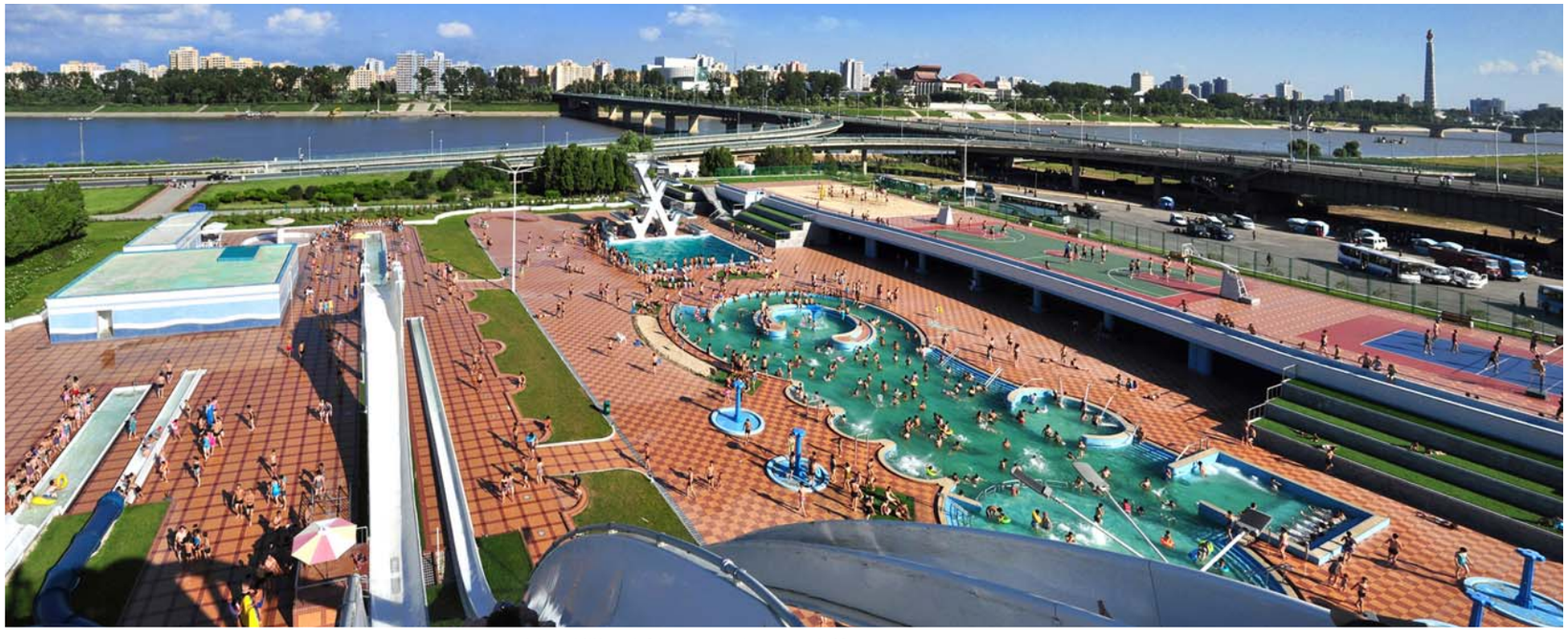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나온 려정은 인민의 복리를 위한 헌신의 자욱들로 새겨져있다고 볼수 있다.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새겨진 자욱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고생, 인민을 위한 창조를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며 나라의 방방곡곡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말 릉라도의 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보아도 릉라인민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인민에게 이 세상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의 험한 길도 앞장에서 걸으시였고 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오르시여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완공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그이이시다.



인민의 기쁨 넘치는 릉라물놀이장 주체103(2014)년 촬영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주체109(2020)년 1월상순 촬영

릉라인민유원지가 완공되였을 때에는 인민들이 리용하는데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릉라인민유원지에 이어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인 류경원과 사철 스케트와 로라스케트를 타며 체력을 단련할수 있는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이 련이어 일떠섰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복리가 우선시되도록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의 형성안들도 많은 시간을 바치시며 보아주시였다.

점과 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따져가시며 문수물놀이장건설형성안만도 수많이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것으로 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간다는 산세험한 마식령지구에 스키장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몸소 삭도를 타시고 정점에까지 오르시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직접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였고 주로들의 상태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스키운동을 하며 희열에 넘쳐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어느해 무더운 삼복철에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도 찾으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미림승마

구락부건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수준에서 잘 꾸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격정을 누르지 못하던 한 일군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하겠으니 무더운 삼복철에는 현지지도를 제발 삼가해주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나에게 삼복철에는 현지지도를 하러 다니는것을 삼가해달라고 하는데 날씨가 아무리 무덥다고 하여도 내가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주체107(2018)년 8월중순 조국의 풍부한 온천들을 다양하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시던 그이께서는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료와 휴양도 할수 있는 온천문화휴양지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머나먼 밤길을 달리시여 이곳을 찾으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도가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콸콸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인 피로가 다 가셔지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산이 높고 숲이 무성하여 공기좋고 풍치수려한 양덕군은 온천휴양소, 료양소들을 꾸리기에 적중하다고 하시면서 종합려관을 건설할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이 지구에 종합려관을 덩지가 크게 앉히고 주변에는 자취숙소들도 잘 꾸리며 각종 현대적인 종합봉사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 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고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봉사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위민헌신의 자욱우에서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조국의 모습을 변모시키며 일떠서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두해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서 평양종합병원착공을 선포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최급선무로 내세우고 보건시설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101(2012)년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중에 여러 차례 나오시여 건물이나 번듯하게 지어놓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바에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건물을 짓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녀성들속에서 발생하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치료할수 있는 림상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의사들과 연구사들을 배치하고 첨단설비들을 차려놓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험한 진창길을 밟으시며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병원건설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주체103(2014)년 3월에는 운영중에 있는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찾으시여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료해하시였다. 류경치과병원의 진단치료실, 구급치료실, 기공실, 보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하루에 환자들이 몇명이나 찾아오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시고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어디가 아픈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 지어주신 궁전같은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로인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이이시다.

그러시고는 옥류아동병원에도 들리시여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

현대적인 병원들이 건설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려명거리의 밤

주시였다.

하기에 주체105(2016)년 10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시여 지난 몇해동안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을 건설한데 이어 올해에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또 건설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을 거의 하나씩 일떠세운것으로 된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행복의 요람, 보금자리

조국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에서 맞고보낸 지난 10여년세월에 이름을 단다면 아마도 《보금자리》라는 네 글자가 나올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들에 인민의 웃음소리 활짝 꽃펴나도록 해주신 그이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여 군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주체106(2017)년 12월 그이께서는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지대의 본보기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삼복의 폭염과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은 물론 학교와 병원,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당의 의도대로 읍지구(당시)건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107(2018)년 한해동안에만도 세차례나 삼지연군건설장을 찾으신 그이이시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체108(2019)년 12월 인민의 리상도시, 산간문화도시인 삼지연시가 완공되였다.

그이의 거룩한 발자취는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들에도 찍혀져있다.

주체104(2015)년 2월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울 구상을 더욱 무르익히신 그이께서는 그 이후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여 미래과학자거리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현대문명의 본보기거리로 되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려명거리를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로 되게 하여주시려 수십차에 걸쳐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깊은 밤에도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세계에 의하여 10여년동안에 평양시에만도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인 현대적인 창전거리, 은하

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들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함경남북도를 비롯한 자연의 재난을 당하였던 나라의 곳곳에 새 마을들이 일떠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그이께서는 당대회가 결정한 무겁고도 거창한 투쟁과업들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 오늘로써 드디여 본격적인 시발을 떼게 되였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그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속에 이 땅우에는 인민의 복리를 위한 창조물들이 속속 일떠서고있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인민사랑속에 아직은 어려운것, 부족한것이 많아도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웃음꽃이 피여나고있으며 조국은 보다 아름다울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홍광남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인의 첫째가는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다.

사상리론의 위대성은 위인이 지니고있는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과 이룩한 사상리론업적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수 있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10년 령도사에서 가장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비상히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라는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의 사상리론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다방면적이며 백과전서적이다.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한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계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데 대하여》,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그이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에는 자력갱생, 사회주의문명건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실천적문제들이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명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고 인민의 복리증진에로 지향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주체104(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더욱 뚜렷이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이라고 밝히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등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이다》, 《문수물놀이장은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이다》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에는 조국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만도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당과 국가발전의 강령적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급변하는 정세속에서도 한치의 탈선이나 한번의 로선상착오도 없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 우리 조국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여러 나라 어문으로 번역출판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들

복받은 대지에서 사는 사람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자랑할만한것이 별로 없었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고장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곳으로 되였다.

주체109(2020)년 조국의 여러 지역에 들이닥친 큰물로 이 협동농장의 전반적인 농경지들과 살림집들이 침수되였다.

농장원들이 맥을 놓고 한탄하고있을 때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물도 채 찌지 않은 농장마을에 찾아오시여 피해정형을 료해하시고 복구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선경마을이 일떠서 이곳 농장원들이 한날한시에 새 마을, 새집에 보금자리를 펴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였다.

어제날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마을은 겨울의 추위속에서도 한껏 운치를 돋구고 있다.

제5작업반의 김복실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9(2020)년 9월 11일 한창 건설할 때 몸소 다녀가신 집이랍니다. 보다싶이 방이 넓고 해빛이 잘 드는데다가 구들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 농민들에게 이런 좋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집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 차례 대청리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지역의 800세대가운데서 400~500세대만 새로 짓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방안이 제기되였지만 모두 새로 짓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살림집천정과 환기창의 높이까지도 가늠해보시였다.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로고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였다.

그리고 그이께서 다녀가신

진창길도 번듯하게 닦고 길옆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껏 가꾸고있다.

지난해 농사도 직심스레 지어 다수확농민들이 늘어났고 알곡생산량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관개수로도 다시 정리하여 재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으며 새땅찾기와 토지정리사업을 진행하여 농장의 전반적면모를 일신하였다.

지금 농장원들은 복받은 대청땅에 행복이 꽃펴남을 온몸으로 느끼며 올해 영농준비로 들끓고있다.

제5작업반 반장 리혁철의 말에 의하면 새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자고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이였다.

농장에서는 봄철까지 많은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를 마련하여 포전들에 실어내기 위한 작업이 분조별, 작업반별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모내는기계와 모뜨는기계를 비롯한 각종 영농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특히 지난 시기의 농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지역의 기상기후 및 토양조건에 맞게 농작물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벼강화재배기술을 비롯한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관리위원장 리현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전길을 오고갈 때나, 새집에 들어설 때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다시한번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복받은 대지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우리는 새해에도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관철하여 풍요한 가을을 마련함으로써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하려고 합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리광성, 리성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가 주체110(2021)년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 무력기관 일군들과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히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추모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를 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추모사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비범한 생의 첫 자욱을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생의 모든것을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는 력사발전의 법칙임을 힘있게 론증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위력을 백방으로 발양시키시였으며 조국수호전의 진두에 서시여 령활한 지략과 담대한 결단, 초강도강행군으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였다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강조국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여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면서 조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을 건설하고 일심단결의 새시대를 개척한 전환점으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장군님은 격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천만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력사의 흐름을 억세게 주도해오신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고생하는 인민의 아픔을 두고서는 마음속괴로움과 남모르는 눈물도 많으신 뜨거운 인간이시였으며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우리 국가의 자립적발전잠재력을 튼튼히 다져놓으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라는데 대해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국가방위의 주체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준비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면서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을 틀어쥐시고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성을 일층 강화하며 경제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을 병행시켜 나가시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국가의 자립적발전잠재력은 지구의 동방에 죽을지언정 굴종과 예속을 원치 않는 위대한 인민이 있으며 자주적인민의 모든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라는것을 강력한 힘의 실체로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중대결단들을 련이어 내리시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시

였으며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높이 온갖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데 대해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높이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를 이어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먼길을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주체혁명의 향도자로 내세우시고 **김정은**동지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의 장래운명을 맡기시였다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장군님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은 반드시 건설된다는것이 지난 10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신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끝으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고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　　*　　*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주체110(2021)년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열화같은 그리움, 충성의 맹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주체110(2021)년 12월 17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 추모대회와 추모회가 12월 17일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날이 갈수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로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추모대회, 추모회장소들로 모여왔다.

추모대회, 추모회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였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 삼지연시로부터 분계연선의 개성시에 이르기까지, 조선서해의 비단섬에서 동해의 알섬 등대마을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어촌, 학교 등 모든 단위와 천리방선초소들에 조기가 드리워졌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12시, 전국에 일제히 고동이 울리였다.

도로와 궤도우를 달리던 자동차, 기관차들과 도시와 마을, 일터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울리는 고동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하여 3분간 일제히 묵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광장공원에 들어선 군중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주체

12월 17일 12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이 일제히 묵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 추모대회와 추모회가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의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불같은 헌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군중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해외연고자가족들과 해외동포들이 보내여온 꽃바구니의 일부

으시고 전인미답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각지의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따뜻이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천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한 중앙미술전시회와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 근로단체들의 덕성발표모임이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이 땅우에 청년강국의 새 력사, 청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전국의 근로단체조직들에서도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성발표모임, 덕성발표모임, 시와 노래모임들에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멀고도 험난한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의 천출위인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장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중앙미술전시회장에서

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기록영화들을 전국 각지에서 시청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정당, 단체, 인사들, 재중동포단체가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이와 함께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어버이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에 넘쳐있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덕성발표모임이 진행되였다.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이 진행되였다.

재중, 재로동포단체들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추모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심양시공민들은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는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회가 주체110(2021)년 12월 17일 심양시에서 진행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료녕지구협회 산하 조직 일군들, 심양시와 단동시공민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최수봉제1부의장은 추모사에서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 된데 대해 언급하고 전체 재중조선인들과 재중동포들이 절절한 그리움속에 그이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 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먼곳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다심한 심정으로 재중조선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여 조선사람의 넋을 지켜 변함없는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추모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목단강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중남지구협회 상해시지부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도 추모모임이 있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와 재로동포들도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주체110(2021)년 12월 15일 모스크바에서 로씨야고통련 추모모임이 있었다.

추모모임에서 김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10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의 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업적을 그대로 계승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주체110(2021)년 12월 17일 로씨야 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원동고통련)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였다.

원동고통련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1990년대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조선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던 엄혹한 시기 조선은 살아있으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세계앞에 증명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이보다 앞서 로씨야조선전쟁로병리사회에서도 추모모임이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전룡진

일심단결은 조선의 국력

일반적으로 국력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의 힘을 의미한다.

많은 자원이나 재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제나름의 힘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추동해나가고있다.

하다면 조국이 겹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주체조선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 바로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공고성의 근본담보가 있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특유의 불가항력이다.

지난 10년간 력사에 류례없는 도전을 맞받아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올려세운 바탕에는 바로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놓여있다.

그 힘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으로 혹독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국방공업과 광란도 뚫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공개서한을 받들고 함경남도를 비롯한 북부피해지역들에 달려나간 수도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과 몇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재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일떠세웠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일심단결은 제일가는 국력, 주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에는 많은 주객관적조건과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령도자와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일심단결의 힘으로 승리해온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민족해방의 위업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였고 재더미우에서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과시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였다.

하다면 엄혹한 자연의 광란에도,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봉쇄에도 끄떡없이 조국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불가항력의 힘-일심단결은 어떤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문구가 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출발점이 수령의 인민사랑인것으로 하여 진리이고 수령에 대한 인민의 신뢰가 절대적인것으로 하여 불가항력적이며 총적지향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것으로 하여 비가역적이다.

…

이것이 내가 본 단결로 위력한 **김정은**시대 조선의 모습이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대학교수가 쓴 글의 한 대목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 뜨거운 혈연의 정과 의리로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은 조선특유의것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간주하고계신다.

이 땅에 자연의 재난은 있어도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고생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 인민들일수록 더더욱 뜨겁게 품어주시였고 불같은 헌신으로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그이이시다.

주체109(2020)년 나라의 여러 지역이 뜻밖의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그이께서는 큰물이 채 찌지 않은 험한 곳으로 직접 차를 몰아가시였고 방틀로 림시교각을 세운 위험한 철교를 지나 피해지역을 찾으시였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있을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락심하게 하거나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이시였다.

파도사나운 날바다를 헤가르며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아 사랑을 안겨주시는 령도자를 우러러 군인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그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혼연일체의 화폭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있으며 자기들이 안겨사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당의 사상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데 충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주체105(2016)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3개월동안 중지된 속에서도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방대한 려명거리건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고 주체109(2020)년 자연의 대재앙으로 폐허가 되였던 피해지역들에 인민의 보금자리가 사회주의선경마을들로 일떠선것은 령도자의 사상으로 숨쉬고 령도자의 구상을 꽃피우기 위함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민의 고결한 충의가 안아온 결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없이 많다.

말그대로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실무적인 단결이 아니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공고한 단결이다.

조선로동당은 지난해 앞으로의 5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향도해나가고있다.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오늘과 같은 형편에서 조선로동당이 이렇듯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실천해나가는것은 인민을 위해서이며 당의 결심을 받드는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 무궁무진한 힘을 믿기때문이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어 조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따라 승승장구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남 만 으 로

(전호에서 계속)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량세봉이 당취오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보도가 소사하골짜기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훈은 량세봉이 반공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국민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달가와하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피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리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량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계를 중시한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량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시절에 들었다. 량사령과 우리 아버지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신도 써주지 않았을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손에 돈도 쥐여주지 않았을것이다. 학비난때문에 남들이 다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푼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량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길 때 량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떠오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해동안의 실전경험을 가지고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 않게 간절하였다.

총알맛은 한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량세봉사령은 백전로장이라고 할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운동자들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것이지 그들의 군사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였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테로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령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해방의 공동성업이라는 경륜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수 없었다.

남만에는 량세봉부대외에도 리홍광, 리동광과 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있었다. 리홍광이 1932년 5월에 조직한 유격대를 반석공농의용군이라고 하였다. 이 부대는 후날 중국공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개편되였다.

리홍광이 유명한 인물로 된것은 그가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가지고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한데도 있지만 관동군신문, 만주국신문과 같은 적의 출판물들이 그를 《녀장군》이라고 오보한데도 있었다.

리홍광이 《녀장군》으로 불리워지게 된데는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희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동흥습격전투를 끝내고 근거지로 돌아온 후 리홍광은 자기의 휘하에 있던 한 녀성유격대원을 시켜 포로들을 심문하게 하였다. 그 녀대원은 심문에 앞서 《나는 리홍광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 포로들에게 경찰의 병력배치와 《토벌》계획을 진술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리홍광은 20살쯤 난 미인이더라.》는 소문을 퍼뜨려놓았다. 이렇게 되여 일본군인들속에서는 리홍광이 《녀장군》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리홍광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군사가로서의 기지와 담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이라면 리동광은 당건설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일군이였다. 그의 이름은 벌써 1920년대 후반기부터 동만지방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나에게 리동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김준, 서철, 송무선이였다. 리동광은 룡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룡정에서 리동광이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였다가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길림에까지 날아왔다.

나는 1930년 여름에 할빈에서 서철동무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리동광이 나를 알고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안창호선생이 길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리동광이 나를 보았고 그후에는 오리하자에서 반석지구농민대표회의를 할 때 나를 본적이 있다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서철에게 리동광을 만나면 우리의 투쟁전략을 전하라는것과 언제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은 전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것이라는 나의 말도 전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리동광이 남만특위 서기, 동남만성위 조직부장을 력임하였지만 우리가 남만원정을 준비하던 당시는 반석현에서 구위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만과 마찬가지로 남만지방에서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력량의 골간을 이루고있었다.

우리는 남만에 나가면 그들과도 련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실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남만지방의 유격부대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리홍광, 리동광, 양정우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류하, 흥경, 반석을 비롯한 남만일대는 우리의 조직이 많이 들어가있었다. 우리는 중부만주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우수한 일군들을 많이 파견하여 조직공작을 시키였다. 최창걸과 김원우도 거기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여난 조직들이 9.18사변후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복구하고 위축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수 있었다.

어떤 력사가들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혁명이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다.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첫 로정을 남만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적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본부가 자리잡고있는 김정룡의 집에서 동만의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문제와 근거지창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부대안에서 두세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론쟁을 벌리던 청년들도 이 원정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주체철학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

일반적으로 철학은 근본문제를 가진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철학리론을 전개하고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문제이다.

어떤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에 따라 철학적세계관의 전반체계와 내용의 폭과 심도, 그 성격과 과학성이 규정된다.

인간의 리성적사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한 철학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철학조류, 사조들이 태어났고 어느 철학이나 례외없이 근본문제를 제기하였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철학자의 자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성으로부터 반드시 있게 되는 리론적출발점, 기초로 되는 문제이다.

주체사상이 창시되기 이전시기에는 대체로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았다.

력사적으로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의 두 철학조류가 대립되여 끊임없는 론쟁을 거듭하여왔다.

종래철학의 근본문제는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되게 되였으며 그에 의하여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세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맑스주의유물변증법철학에 의하여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관한 철학의 근본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주체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주체철학에서는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내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가장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관계인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밝힌 획기적발견이였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가장 과학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이 문제가 철학적세계관의 사명을 직접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며 그 근본방도를 밝혀주는데 있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세계와의 호상작용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은 세계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과정이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운명문제는 결국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귀착된다.

종래의 철학의 근본문제인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는 사람의 운명문제에 직접 해답을 주는 문제가 아니며 그 해명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유물론적리해를 주는 경우에도 사람의 운명개척을 위한 필수적전제를 지어주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람의 운명문제에 직접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와는 달리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철학적세계관의 사명을 직접 구현한것으로 하여 참다운 철학의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위주의 철학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종래의 굳어진 리해가 타파되고 철학의 전반체계와 내용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근본방도를 밝히는데로 확고히 지향되게 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선일

사회적시책, 그 크기는 얼마인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는 직업난, 살림집난, 치료비난, 학비난을 비롯하여 생활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조국인민은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고있는 사회적시책의 혜택속에서 로동과 문화생활을 하고있다.

하지만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은 조국인민들이 그 혜택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 값을 전혀 모르고있다는 사실이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의사담당구역제, 산전산후휴가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살림집들을 배정해주는 제도,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이 모든 인민적시책들은 결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이 전쟁승리에 총동원되여야 했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여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불비쏟아지는 속에서도 인민군전사들을 위한 화선휴양소가 꾸려져 전선에서 싸우던 군인들의 정휴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취해지고 학생들의 교과서가 군용차에 실려 수송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채택됨으로써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경치좋은 명당자리들마다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같은 아이들의 궁전들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훌륭히 일떠섰고 도처에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인민적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였으며 오늘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확대실시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 집마련이 평생소원이라지만 조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모든것이 구비된 살림집에서 평등하게 살고있다.

최근년간 조국은 수도 평양에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여러 거리들을 일떠세웠고 지방들에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는 살림집들을 수많이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앞으로 당창건 80돐이 되는 주체114(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중에 있는 1만 6 000여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시였다.

조국에서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고 물질적부가 많아서가 아니다.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웠기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을 위한 시책들만은 변함없이 실시해올수 있었다.

이것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현실인것이다.

대동강구역에 사는 문영애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가정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얼마인지 다는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더우기 영예군인인 아들이 우선적인 검진과 치료 등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데다가 얼마전에는 대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고마운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를 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제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그의 심정만이 아니다.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는 인민들의 마음속진정인것이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귀중함을 간직하고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뚫고나가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려해

기술혁신과 재자원화를 추진하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은 각종 전기기계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성능높은 변압기와 전동기를 비롯한 전기기계들을 수많이 생산하여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지금 공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과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발전소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변압기와 전동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기사장 주재성은 《우리 공장앞에는 각종 변압기, 전동기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많은 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우리는 기술혁신과 재자원화에서 찾고 힘있게 내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운데 맞게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어느 한 생산공정에 CNC45°철심절단선을 개발하고 설치하여 생산성을 2배로 높이였고 유수분리기를 제작하여 변압기의 절연성과 랭각성을 높임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늘이였다.

기술혁신은 로동자들속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전동기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기술혁신으로 20여일 걸린다던 철심가공을 3일만에 완성하였고 청년가공직장에서는 지구장비를 창안도입하여 6일동안에 하던 부속품가공을 하루

발전소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낼 전기기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로동계급들

만에 끌내였다.

공장에서는 재자원화를 생산정상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폐기된 설비들의 틀과 철심들을 재리용함으로써 수십대의 각종 설비들을 생산하여 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이 공장은 조국에서 첫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닌 공장이다.

공장종업원들은 전세대들이 창조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것이 어렵지만 집체적 지혜와 단합된 힘으로 대상설비 생산에서 보다 큰걸음을 내디딜 열의에 넘쳐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전력증산에 박차를

동평양화력발전소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는 기업소이다.

지금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책임감을 안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전력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지난해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전력증산방도를 회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서 찾고 정비보강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갔다.

발전소에서는 보이라의 열효률을 보다 높이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대책들을 앞세워나갔다. 보이라의 호기당 증기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 설비보수에 필요한 지구장비를 새로 제작하여 효률을 높이는 사업, 단열벽돌소성공정의 가열로에 자동온도조절체계를 받아들여 제품의 질과 량을 끌어올리는 사업 등 다양한 기술혁신으로 전력생산을 높여나갔다.

하여 지난해 전력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더 많은 전력을 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따라세우고 있다.

기사장 최순덕은 《우리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토대를 발전지향성있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과감히 조직전개함으로써 오늘의 성과가 래일의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청년, 그 이름 어디서나

조국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탄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청춘송가를 엮어나가고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몇달동안에만도 수천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였다.

특히 남포시의 140여명의 청년들이 농촌건설의 주인이 될 포부를 안고 농장에 진출하였고 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자강도의 수많은 청년일군들과 청년들이 농촌과 탄광, 광산들에 삶의 뿌리를 내리였다.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농촌으로, 탄광으로, 섬마을로 자진하여가는 청년들의 가슴마다에는 전세대 청년들이 발휘한 위훈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려는 열의들이 차넘치였다.

전세대 청년들의 위훈, 이것은 결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보위하고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솔선 달려가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였다.

건국의 첫 기슭에서 민청(오늘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새 조국건설의 앞장에서 내달린것도 청년들이였고 조국이 전후의 재더미를 털어버리며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하는데서 앞장선것도 미더운 청년들이였다.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청년건설자들

주체104(2015)년 촬영

청년들의 지칠줄 모르는 애국열은 천리마시대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청년사회주의건설자의 고귀한 부름을 청사에 새기였다.

해주-하성사이 넓은철길은 조국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위훈을 전하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청년들은 3~4년은 실히 걸려야 하는 방대한 철길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집단적혁신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해나갔다.

주체47(1958)년 6월 공사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천리마를 타고 쉴사이없이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동무들은 천리마를 타고 가는 첫 부대라고 격려해주시였다.

청년들은 절벽의 소나무에 건 바줄에 의지하여 발파구멍을 뚫어 5만산, 7만산발파도 단숨에 해제끼였다.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80여㎞의 철길을 부설하고 5 600여㎡의 옹벽을 쌓으며 38개의 철다리와 9개의 역사, 기관구 등을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해주-하성사이 넓은철길공사가 단 75일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조국청년들은 드넓은 바다우에도 청춘의 활무대를 펼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청년들은 바다로!》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48(1959)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6 000여명의 청년들이 동서해의 수산사업소들로 달려나가 어장마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리였다.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바다이건 탄광이건 산림으로 적극 진출하는 애국청년들의 대오는 나날이 늘어났다.

주체50(1961)년부터 주체58(1969)년사이에 150여만명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고 260여만명이 7만여개의 청년돌격대에 망라되였으며 청년작업반, 청년직장(갱), 《민청(사로청)》호기대가 각각 3 580여개, 520여개, 3 800대로 장성하였다.

위대한 창조와 혁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전통은 혁

청년건설자들은 보통 상식으로는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하성사이 넓은철길공사를 75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체47(1958)년 촬영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청년건설자들 주체104(2015)년 촬영

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끊임없이 이어졌다.

북방의 엄혹한 강추위속에서 건설된 북부철길도 청년들의 위훈을 전하고있다. 청년들은 충천한 기세로 차굴과 철다리공사에서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속도로 전진함으로써 주체77(1988)년 8월 25일까지 1단계 구간의 대상건설을 완전히 끝내였다.

주체87(1998)년 나라의 경제형편이 가장 엄혹했던 시기에 시작되여 주체89(2000)년 10월에 완공된 청년영웅도로는 청년들의 이름으로 빛나고있다.

당시 전국각지에서 자원적으로 탄원해나선 5만여명의 청년들은 건설기계수단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강추위와 무더위를 무릅쓰고 수백일간의 낮과 밤을 이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함마와 정대로 바위를 까내며 한치 또 한치 로반을 열어나가면서 700여일이라는 기간에 거창한 도로를 완공하였다.

나라에서는 청년건설자들의 위훈을 빛내이기 위하여 이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하였으며 건설자들에게 기념메달도 수여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의 위훈의 대기념비이다.

청년들은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만년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뚫었으며 10년 동안에 해놓은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만에 해제끼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영웅청년신화도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력사적시기마다 곤난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깡그리 발휘한 조국청년들,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열의에 떠받들려 시대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 이 땅우에는 로동당시대의 대번영기가 펼쳐졌다.

청년들의 위훈은 창조물마다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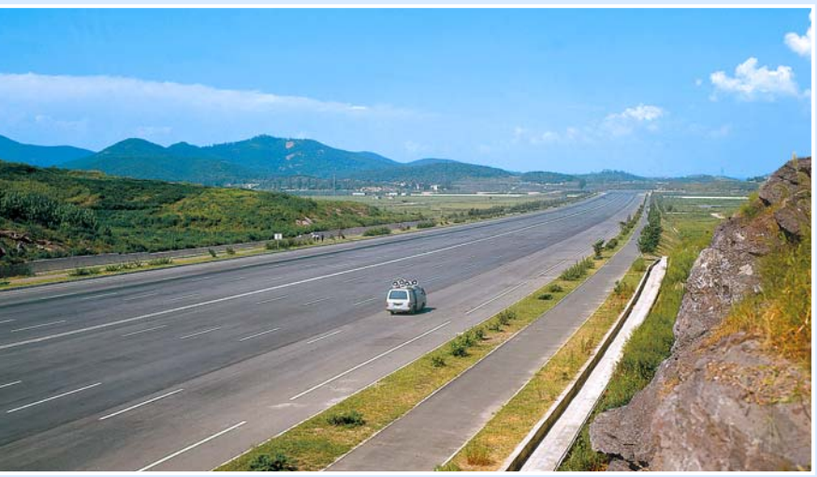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득장청년탄광,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청년영웅도로, 황북청년제염소, 염주청년양어장,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조국이 또 한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제일선에 달려나가 불멸의 위훈으로 강산을 뒤흔들던 기적의 청년신화는 결코 추억속에 있는 과거가 아니며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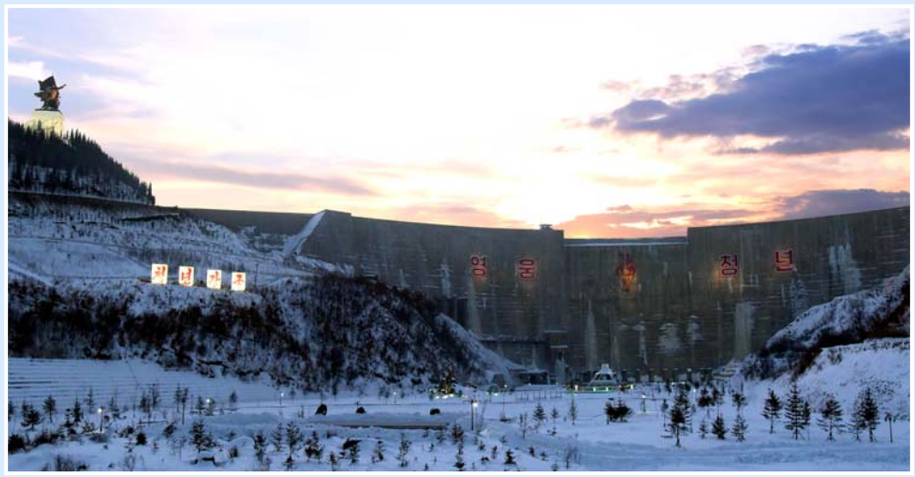
하기에 청년들은 전세대 청년들이 발휘한 정신, 위훈을 이어 오늘도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애국청년의 슬기와 열정을 바쳐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청년들의 위훈은 창조물마다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청년영웅도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초음파의 응용범위를 넓혀가는 연구사들

초음파는 주파수가 20㎑이상으로서 사람들이 들을수 없는 소리파의 일종이다. 일반 가청음파와 달리 높은 지향성과 에네르기밀도를 가지고있는 초음파는 공업과 의학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음향공학연구실은 발족된지 몇년 안되지만 조국의 초음파응용분야에서 공인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연구실에서는 초음파세척기, 초음파분산기, 초음파안개발생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결함탐지기 등의 초음파전문장치들을 내놓았을뿐 아니라 초음파분산유화장치, 초음파습윤기를 비롯한 경계과학제품들까지 설계제작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학부장 박사 부교수 리경호는 《처음 연구실이 발족되였을 당시 국내에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초음파응용분야를 연구해오는 전문연구집단들이 있었다. 그들과 비교해볼 때 뒤늦게 나선 우리들이였지만 초음파제품들을 모두 자체의 힘으로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첨단기술제품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연구제작한 첨단기술제품인 초음파세척기도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보겠다는 야심이 안아온 창조물이다.

자동차, 비행기, 배 등에 쓰이는 정밀기계부분품들과 태양전지전도성유리 등의 세척에 쓰이는 초음파세척기를 개발목표로 정하였을 때 그들앞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다.

대다수가 20, 30대의 젊은 연구사들로서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첨단과학의 미지세계를 하나하나 파헤쳐나갔다.

이 과정에 초음파응용에서 기본인 진동계모의해석방법과 정합을 비롯한 핵심기술이 리경호박사에 의해 해결된데 이어 여러 연구사들도 초음파응용의 관건적기술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였다. 특히 김성철, 박승혁연구사들은 그 어떤 부하조건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수 있는 주파수추종방식의 초음파발진단을 개발하여 초음파세척기의 연구제작에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곧 연구성과에로 이어져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각종 규격의 초음파세척기를 국내에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들이 연구한 초음파세척기로는 표면이 복잡하거나 깊은 구멍들이 있는 제품, 실험기구 및 수술도구, 귀금속제품 등을 효과적으로 세척할수 있다.

이때 리용하는 세척액은 주로 물이지만 알카리, 산, 유기용매세척제들도 리용할수 있고 세척시간도 자체로 설정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온도조종기능도 첨가할수 있다. 그리고 세척공정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할수 있으며 세척효과도 훨씬 높일수 있다고 한다.

연구사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초음파응용범위를 보다 넓히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투입형초음파진동판과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결함탐지기도 련이어 개발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첨단기술제품중에는 초음파분산유화장치도 있다.

초음파공학과 경계과학의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응용된 초음파분산유화장치는 외형과 성능에 있어서 수입산설비에 못지않으며 화장품, 식료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널리 리용되고있을뿐 아니라 탄소나노관이나 풀러렌과 같은 나노재료제조에서도 리용전망이 크게 기대되고있다.

황주영실장은 《우리가 첨단설비들을 연구제작할 목표를 내세웠을 때 그 어떤 기술적파악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오로지 우리의 기술, 조국의 자원으로 첨단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자는 하나의 지향이 모두의 가슴에 불탔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음향공학연구실에서 연구개발한 초음파제품들은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한 여러 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대부분 제품들이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연구실에서 연구제작한 초음파설비들의 일부

식당배 《대동강》호에 올라

대동강은 우리 나라 5대장강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의 발원지인 대동강류역에는 인류의 문명을 보여주는 수많은 유적유물들이 있으며 대동강문화는 세계5대 문화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다.

오늘 대동강은 모란봉과 만경봉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날을 따라 변모되는 수도 평양의 약동하는 기상을 담고 유유히 흐르고있다.

이러한 대동강에 식당배《대동강》호,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들이 띄워짐으로써 강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특히 식당배 《대동강》호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있다.

2층으로 되여있는 《대동강》호는 한번에 300명의 손님들을 수용할수 있다.

여러 식사실과 연회장, 상점 등을 갖춘 식당배에서는 대동강의 풍치에 어울리게 수산물료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평양랭면, 신선로를 비롯한 전통적인 조선민족음식들을 봉사하고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산물고기로 만든 탕, 찜, 회들을 봉사하고있는데 제일 인기가 높은것이 룡정어탕과 철갑상어간장찜이다.

료리도 별맛이지만 접대원들의 예술공연 또한 특색있다. 능란한 예술적기량을 가진 접대원들은 조선민요들과 대중가요들로 유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배전너머로 흘러가는 평양의 절경을 부감하는 멋은 또 그것대로 이채롭다. 평양의 절경을 그려내기에는 자기 재능이 모자라다고 하며 붓을 놓고 눈물을 흘렸다는 김황원의 옛이야기가 되새겨지는 련광정이며 조국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전하는 대동문, 평양랭면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옥류관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그리고 인민의 보금자리들인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으며 모란꽃과도 같은 기묘하고 특이한 자태로 조국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란봉과 릉라인민유원지가 어서 오라고 부르는듯하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인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과 높이가 170m인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도 관망할수 있다.

손님들은 평양의 약동하는 모습, 젊어지는 모습을 사진기와 손전화기에 담는가 하면 기쁨에 넘쳐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대동강》호 부선장 겸 항해사 홍영철은《매일 보는 평양의 경치이지만 볼수록 장관입니다. 낮은 낮대로 멋있지만 밤경치 또한 황홀하여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데 손님들의 심정은 아마 더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곳을 찾았던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땀맘 쑬레이만은 식당배는 수도 평양과 아름다운 대동강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하는 훌륭한 관광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와있는 어떤 관광객이든 외교관이든 꼭 와봐야 한다고 감상록에 글을 남겼다.

식당배 《대동강》호 경리 강봉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3월 건조중에 있는 식당배 <대동강>호를 찾으시여 평양의 자랑인 대동강에 현대적인 식당배를 띄워놓고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려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현대적인 식당배가 대동강을 오르내리며 인민들에게 봉사를 하게 되면 평양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이채로와 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더 짜고들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당배로 되게 하겠습니다.》

식당배 《대동강》호에서 울리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대동강과 더불어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민족과 운명

명망높은 동포활동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다.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쳐진 인간의 삶은 그가 어디에 살든 조국의 력사속에 빛난다.

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한생을 바쳐온 한덕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초대의장의 생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초 행 길

주체41(1952)년 어느날 일본 도꾜도 이따바시의 한 목조건물에서 밤깊도록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 한덕수였다.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을 두고 생각이 착잡해졌다.

조국해방(1945. 8. 15.)의 환희속에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이 조직된 때부터 미국과 일본의 불순세력은 조선민족의 재생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갖은 방해책동을 강행하였다. 주체38(1949)년말에는 탄압의 칼을 휘두르며 조련을 강제해산시켰다.

그후 주체40(1951)년 1월 재일조선인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였을 때에는 지도층에 끼여든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수많은 동포들이 무모한 투쟁으로 더운 피를 흘렸다. 때를 만난 불순세력은 《위험단체》의 《폭력방지》를 구실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고 재일조선인운동은 파멸상태에 직면하였다.

그는 그 해결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편지를 올리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당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의 감격은 참으로 컸다. 그는 지나온 나날들이 격정속에 돌이켜졌다.

1907년 2월 경상북도 경산군의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에 의해 일본땅에서 고역을 치르는 속에서도 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생존을 위하여 앞장에서 투쟁하였다.

그후 조련을 결성하였지만 앞을 가로막는 시련이 너무도 산같아 속수무책으로 모대기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받아안고 새로운 큰걸음을 내딛게 되였다.

주체37(1948)년 12월에는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재일조선

재일동포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애국애족의 리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한덕수 1970년대 촬영

인운동의 장래를 부탁한다는 그이의 믿음을 받아안았다.

그는 설음과 비분, 환희와 격정속에 흘러온 지난날을 되새기며 다시금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기 위한 길에 나섰다.

그는 사람들속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사대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침식을 잊어가며 집필활동을 벌리였고 동포들을 교양하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치렬한 론쟁과 진지한 설복, 헌신적인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동포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웠다.

마침내 주체44(1955)년 5월 25일 도꾜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결성하는 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대회에서 그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람홍색공화국기를 가슴에 품어안고 대회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감격에 젖은 그 만세소리는 재일조선인운동을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은인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였고 한생토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참되게 살려는 불같은 맹세였다.

오직 한마음

《공화국이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오. 수령님의 뜻을 모르면 제정신을 잃게 되오.》

이것은 그가 총련일군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다.

총련결성후 사업에서 무엇보다 걸린것은 동포들의 사상의식상태가 따라서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는 총련중앙과 지역별회의들을 열고 동포들의 사상동원운동을 발기하였다. 그 제의는 그대로 동포사회의 애국적계몽과 통일단결, 총련의 미래를 위한 조직적진출을 알리는 신호총성으로 되였다.

그는 재일동포들의 권리옹호문제를 민족적존엄과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로 보고 그것을 침해하는 일본반동들의 온갖 민족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누구보다도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 나날 말이자 곧 민족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재일동포들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쓰는 운동, 조선사람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내외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을 막고 재일동포들이 대를 이어 민족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궂은날, 진길을 가림없이 각 분회들에 내려가 일군들이 애국애족의 리념을 안고 사업하도록 이끌었고 직접 동포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자기들의 마음속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를 두고 동포들은 누구나 총련의 가장으로 정담아 불렀다.

그의 노력에 의해 도꾜도 고호꾸분회를 비롯한 동포사회의 각곳에 《조국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애국의 글발이 게시되고 이역땅 곳곳마다에서 우리 말, 우리 글을 배우는 동포자녀들의 목소리가 더욱 랑랑히 울려퍼지게 되였다. 민족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기 시작하였다.

그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총련 제6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총련의 사업설계와 동포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꽉 차있었다.

평시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인 조국의 노래 《오직 한마음》을 즐겨 부른 그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를 비롯하여 80편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그가 창작한 노래들에는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 총련조직을 버젓하게 꾸려놓고 조국위해, 권리위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일하는 일군들의 장한 모습, 초중급학교는 물론 대학교도 세워놓고 민족문화와 혁명전통을 체계있게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모습, 모든 동포들이 조국의 해외공민답게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모습,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 등이 격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있는 한덕수
주체70(1981)년 촬영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함께 조국을 찾은 한덕수 주체72(1983)년 촬영

조높이 반영되여있다.

오늘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계층별단체들과 수많은 부문별사업체들을 망라한 재일동포들의 대중적애국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애국애족운동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민족말살책동이 우심한 자본주의이역땅에서 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휘날리며 애국의 기치드높이 민족의 단합, 민족의 권리실현을 위해 자기 발전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총련, 세월의 풍파속에 긍지높이 걸어온 그 먼길을 뒤돌아볼때 애국의 대오를 힘차게 떠밀며 이끌어온 총련의 가장 한덕수의 모습이 뚜렷이 안겨온다.

자기 수령과 조국, 민족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로 생을 빛내여온 그는 인생말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부자다, 나의 큰 재산이란 바로 총련에 대한 조국의 크나큰 믿음이고 조국에 대한 총련의 충정심이다. …

그는 자기의 운명을 총련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한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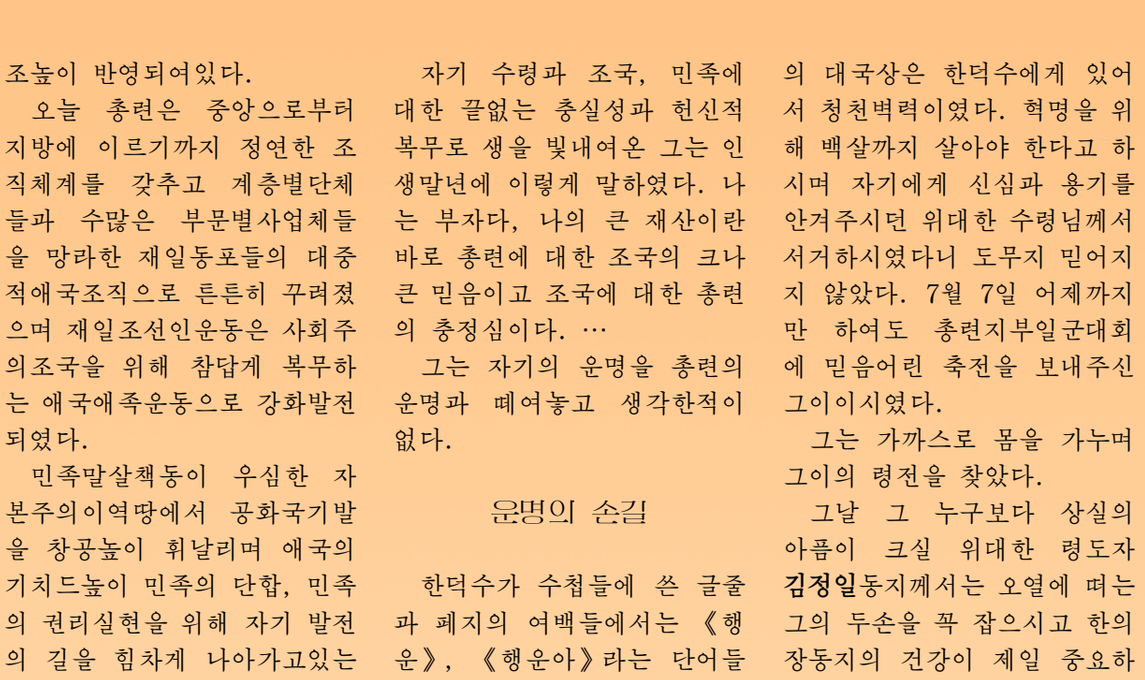
운명의 손길

한덕수가 수첩들에 쓴 글줄과 페지의 여백들에서는 《행운》, 《행운아》라는 단어들을 자주 볼수 있다.

그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였다. 하다면 왜서 자기를 행운아로 자부했는가.

주체83(1994)년 7월 8일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열에 떠는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한의 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힘을 안겨주시였다.

식음을 전폐하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대를 이어 충성다할 마음을 다지였다. 돌이켜보면 총련의 앞길에 시련이 겹쌓일 때마다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면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마음속고충도 풀어주시며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온 가족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주체78(1989)년 촬영

의 대국상은 한덕수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였다. 혁명을 위해 백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기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7월 7일 어제까지만 하여도 총련지부일군대회에 믿음어린 축전을 보내주신 그이이시였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그이의 령전을 찾았다.

그날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힘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다시금 분발해나섰다.

그는 대중교양에 이바지할 문필활동을 여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우리 조국은 천하제일의 위인국입니다》와 같은 글들을 련이어 써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조선학교졸업식들에 참가하여 졸업생들에게 동무들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여야 애국의 대, 민족의 대가 굳건해진다고 절절히 당부하군 하였다.

그는 병상에서도 일군들과 함께 총련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고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애국의 넋을 순결하게 간직해야 총련이 억세여진다고 이르군 하였다.

총련의 미래에 대한 그의 축복은 참으로 뜨거웠다.

그는 증손녀의 이름도 《꽃은 아무리 아름다와도 철을 따르기마련이지만 소나무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한모습이다.》라고 말하며 청송이라고 지었다.

대를 이어 수령께 충성을 다하려는 그의 신념은 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 드린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부르는 시대를 성벽처럼 지키렵니다》라는 헌시에도 어리여있다.

한덕수선생의 유해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다.

그는 생명지표가 위험계선에 이르렀을 때에도 조국에서 병문안을 온 아들을 질책하며 어서 돌아가서 장군님을 받들어 일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의 맏딸 한음전은 《아버지는 흐려지는 의식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늘보다 더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주체90(2001)년 2월 그는 위인에 대한 매혹,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는것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지었다.

수난의 세월 지켜줄 품이 없어 고역으로, 감옥살이로 망국노의 설음속에 살며 운명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해온 그는 조국이 해방된 후 그 누구보다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념원하며 한생을 이역땅에서 시련에 찬 그 길에 자신을 내세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덕수의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을 결성하고 재일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친 혁명의 원로, 로혁명가, 참된 애국충신이였습니다.》

조국에서는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2중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 공화국의 원사, 교수, 박사인 그의 묘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평양경공업대학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으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조국은 그를 자기의 력사속에 품어안은것이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조선약학의 력사를 파헤쳐

주체104(2015)년에 평양의학대학 과학연구부 부장 겸 약제학강좌 교원 송철호는 참고서 《조선약학사》(원시편-중세편)집필을 마무리하였다.

조국에서 약초사용이 시작된 원시시대로부터 중세시기까지의 약학발전력사를 담고있는 참고서의 장, 절마다에는 송철호부장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가 이 참고서를 집필할 마음을 가진것은 20여년전 평양의학대학 박사원때였다.

우연한 기회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조선약학의 발전사에 대하여 물어보는 그들에게 만족할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중세시기에 이룩된 약학에 대해서는 말할수 있었지만 원시시대의 자료는 거의나 파악하지 못했던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여 그는 《조선약학사》집필에 달라붙었다.

집필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해당 시기의 력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하였다.

박사원을 졸업하고 교원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약학의 력사를 파헤치며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어떤 때에는 부피두터운 책에서 단 한줄의 력사자료를 얻기도 하였고 하나의 자료고증을 위해 해당 지방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3대고려의학고전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으며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수집한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뿐만아니라 린접한 나라들의 약학사도 연구하였다.

동료들이 고생을 사서 한다며 이제라도 그만두고 다른 연구에 달라붙을것을 권고하였으나 그는 주저와 동요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이렇게 인내의 7 300여일이 흘러 마침내 《조선약학사》가 완성되게 되였다.

그는 《조선약학사》의 머리말에 이렇게 썼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국에서 선조들은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약초들을 찾아내여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리용하여왔다.

인간이 처음으로 사용한 질병치료수단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천연재료들이였다. 이러한 천연재료들은 인간이 장구한 기간 사용하여오는 과정에 약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계승되여 오늘에 이르렀다. …》

참고서는 출판되자마자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나라에 약초자원이 풍부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참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만드는 약들이 미래에도 선호될수 있게 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읽어볼수록 슬기로운 민족의 후손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다.》 …

그의 참고서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물론 약학부학생들이 즐겨 보는 책으로 되였다.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우리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에서 태여나 8달밖에 안되였던 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62년이 흘렀다.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이였다.

조국에서 그것이 현실로 되였다. 생의 첫걸음마를 떼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성장하면서 나는 매일, 매 순간 행복을 느끼였다.

나라에서는 교육자들을 위해 훌륭한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었고 무상으로 집도 배정해주었다. 교수이며 박사인 나는 120㎡가 넘는 집에서 살고있으며 대학을 나온 두 딸도 행복하게 살고있다.

내가 키워낸 학생들이 박사가 되여 인민이 아는 의사, 약제사로 되였을 때 나는 교육자로서의 행복을 느낀다.》

그는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드바삐 산다.

교수 박사 송철호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가정에서

상 식

온도변화에 따르는 맛

사람의 혀에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

이 신경들은 음식물의 온도변화에 따라 맛을 서로 다르게 느낀다.

실례로 짠맛은 음식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약하게 느껴진다. 뜨거운 된장국이 식으면 짜게 느껴지는것이 바로 그때문이다.

단맛은 음식물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정도일 때 세게 느껴지며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약하게 느껴진다.

특히 단맛은 낮은 온도에서 더 약하게 느껴지므로 찬 음식일수록 단맛감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신맛은 음식물의 온도변화에 크게 관계됨이 없이 느끼는 정도가 일정하다.

쓴맛은 음식물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보다 낮으면 맛이 더 쓰지만 높으면 약하게 느껴진다. 찬 커피가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는것은 그 때문이다.

* * *

자강도의 일부 지명들 (2)

자강도의 남부에는 희천시가 자리잡고있다.

희천시는 고구려시기에 《위성》이라고 불리웠으며 고려초에는 《청새진》이라 하였다. 1217년에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공로가 있다 하여 《위주》로 불리우던것이 후에 《희주》로 고쳐지게 되였다.

1413년에 《주》자가 달린 지명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하여 《산》자나 《천》자로 바꾸는 규례에 따라 희천군으로 불리웠다.

청새진은 청천강상류지역을 보위하는 요새라는 뜻이며 위주는 외적과의 싸움에서 위력을 떨친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그런가 하면 희천의 《희》자는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큰 공로를 세운 빛나는 고장이라는데서 유래되였다.

희천시의 청하동에는 옛날 효자문이 있었다는 효자문골이 있다.

여기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다해 잘 모시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미풍량속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옛날 이 골짜기에는 늙은 어머니를 모신 젊은 부부가 살고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남달리 지극하여 마을의 자랑으로 소문이 났다. 어느날 이곳을 지나던 길손들이 하루밤을 묵게 되였는데 상에는 백미밥에 여러가지 반찬을 올렸으나 어머니밥상에는 기장밥과 고추장만을 올리는것이였다. 한 길손이 이를 나무람했더니 이튿날 아침 손님상도 어머니상과 꼭같이 차리였다. 그런데 그 맛을 보니 천하일미였다. 길손이 그 사유를 묻자 며느리가 조용히 하는 말이 기장쌀은 아홉번 김을 매여 가꾼것이고 고추장은 참깨를 먹여 키운 송아지고기의 장졸임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길손들은 이에 감복하여 효자문을 세워 그들부부를 찬양하였다고 한다.

15세기초에 조선봉건정부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두만강과 압록강류역에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하였다. 이때 자강도지역에도 려연군과 자성군이 생겨나게 되였다.

려연군은 오늘의 중강군지역에 있던 군이다. 《려연》이라는 이름은 압록강연안에 길게 뻗어내린 마을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지게 되였다.

려연이라고 부르게 된데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옛날 이 고장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고향땅을 지켜 마을사람들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운 려군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려동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려군은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무술을 가르쳐 어엿한 장수로 내세웠다.

그러던 어느날 려동에게 연옥이라는 처녀가 찾아왔다. 처녀는 자기는 부모들을 죽인 외적들을 복수할 맹세를 안고나선 소녀라고 하면서 무술을 배워줄것을 간청하였다. 려동은 처녀의 청을 쾌히 받아들여 다음날부터 산발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배워주었다.

세월이 흘러 침략자들이 또다시 마을에 침노하자 려동과 연옥은 창검을 비껴들고 고향마을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후날 마을사람들은 려동과 연옥의 조국애와 향토애, 용감무쌍한 슬기와 무술을 찬양하여 마을이름을 그들의 이름에서 각각 한자씩 따서 《려연》이라 불렀다고 한다.

자성군은 1433년에 군사적요충지인 자작마을에 성을 쌓고 내온 군인데 자작나무가 많은 고장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새로 고을을 내왔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이처럼 자강도의 지명들에는 이 지역의 오랜 력사와 함께 우리 민족이 지닌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생활세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의 자취들이 다분히 어려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서학순

회초리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

흔히 자식교양에서 실패한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눈먼사랑에 빠져》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것은 부모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 자식이 귀할수록 부모는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이런 력사이야기가 있다.

홍서봉(1572년-1645년)의 어머니 류씨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녀성으로 알려져있다.

류씨에게 있어서 남편이 남겨놓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장중보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류씨는 아들이 자그마한 결함이라도 범했을 때에는 엄하게 다스렸다.

력사와 문장에 밝았던 류씨는 아들을 직접 가르쳤는데 장난에 팔려 때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쳤다. 어린 아들의 다리에 멍이 들어도 애처로운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에게 매를 든 날에는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아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군 한 어머니였다.

류씨는 한번 친 회초리는 비단보에 싸서 건사해두었으며 아들이 잘못을 범하면 새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고 또 그것을 건사해두었다.

어느날 친척벌되는 사람이 왔다가 회초리를 비단보에 싸두는 까닭을 물었을 때 류씨는 귀한 아들을 때리는것은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 장차 나라를 받드는 충신으로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티가 없게 하려는 생각에서이라고, 그러니 자손을 가르치는 회초리를 어찌 허술히 하겠는가고, 비록 나무가지일지라도 가문에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홍서봉은 후날 령의정을 지내면서도 어머니가 생전에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있으면서 옷차림과 음식을 검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고자대하는 생각이 무의식중에라도 떠오를가봐 어릴 때 종아리를 맞던 회초리를 자주 어루만지면서 어머니를 추억하군 하였다고 한다.

* * *

유모아

건 망 증

환자: 《선생님, 저의 건망증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의사: 《그런 병증세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환자: 《무슨 병 말입니까?》

* * *

옛탑이 주는 여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고보니 동포여러분의 낯익고 정다운 모습들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마음속의 충동을 안고 사진첩을 펼쳐든 우리는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과 보냈던 즐거운 나날들을 추억하였습니다.

사진들속에는 세해전 가을 묘향산 보현사대웅전앞뜰에 세워진 보현사8각13층탑앞에서 재중동포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그때 한 동포로인이 하였던 말이 먼저 생각키워지는게 아니겠습니까.

보현사8각13층탑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 로인은 학자연한 차림에 미소를 띠우며 동행한 동포들에게 《조선의 옛탑들의 기본특징은 건축구조물들이 상승감을 나타내고있는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불쑥 튀여나온 그의 말에 곁에 있던 동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그 로인에게 이왕 말꼭지를 뗀김에 옛탑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며 추기였습니다. 로인은 머리를 끄덕인 후 탑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선돌이라는것, 원시인들은 청동기시대에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 종족이 다른 종족에 비해 강해질것을 바라는 념원으로부터 선돌을 만들어세웠다는것, 하여 원시인들은 자기 종족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부터 하늘로 향한 세로형의 구조물을 세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식탑건축술을 창조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묘향산 보현사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였던 그 동포로인의 말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지는 이 기회에 우리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조선식탑건축술에 대해 소개할가 합니다.

그럼 먼저 묘향산 보현사에 세워진 8각13층 돌탑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옛 기록에 의하면 이 탑이 세워진 시기는 고려말기라고 합니다. 탑은 굳은 화강석을 섬세하게 다듬어 13층으로 쌓았는데 그 높이는 8.58m(그중 탑몸높이는 6.58m)이며 밑단 한변의 길이는 1.2m입니다.

탑아래밑단의 바닥돌에는 대돌을 3층으로 포개여쌓았으며 웃밑단돌에는 피여오르는 련꽃을 새기였습니다.

묘향산의 보현사4각9층탑을 돌아보는 재중동포들
주체86(1997)년 촬영

묘향산의 보현사8각13층탑

탑몸은 돌의 높이와 너비를 차례로 줄이며 우로 올라갔기 때문에 탑이 안정하면서도 아담해보입니다.

탑의 맨 웃부분에는 청동으로 만든 탑머리장식이 있습니다. 8각으로 된 매층 지붕돌의 추녀끝마다에 달려있는 104개의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주위를 더욱 경쾌하게 하여주고있습니다.

묘향산의 보현사8각13층탑은 굳은 화강석을 가지고 마치 연한 나무를 다듬듯이 섬세하게 다듬어 쌓기도 잘하고 장식도 특색있고 섬세하여 조선중세시기 대표적인 탑건축물의 하나로 손꼽히고있습니다.

이 탑 하나만 놓고서도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재료와 규모 등에 맞게 구조와 비례를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높은 탑건축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조선식탑건축술에서 주목되는것은 초기 나무탑위주의 건축술로부터 점차 돌탑위주의 건축술로 변하였다는것입니다. 물론 나무탑이 위주였던 세나라시기에 돌탑도 있었고 돌탑이 위주로 되였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나무탑도 건설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볼 때 나무탑건축술로부터 돌탑건축술로 변하였던 경향만은 뚜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나라시기에 중세조선력사에서 가장 웅장한 나무탑들이 건설되였으며 고려시기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돌탑건축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식탑건축술을 보여주는 옛탑들로서는 평양시 대성구역의 금강사(498년)에 세워졌던 금강사탑, 7세기에 건설했다는 황룡사9층탑,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등을 꼽을수 있습니다.

조선의 옛탑들은 다른 나라들의 탑과는 달리 사람이 올라갈수 없도록 비실용공간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자기식의 건축술을 확립한 조선민족의 높은 창조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인 조선식탑건축술은 이웃나라들에까지 전파되여 인류의 탑건축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으며 현대건축에도 계승되고있습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이 땅에 서있는 옛탑들.

정말이지 사진속의 옛탑이 남긴 여운은 이렇게 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해외에서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한번 안아보며 민족성을 더욱 떨쳐가기 바랍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정명준

상 식

도 서 《고 려 사》

우리 나라의 력사책들중에는 《고려사》도 있다.

모두 139권으로 되여있는 《고려사》는 고려봉건왕조(918년-1392년)의 력사를 기전체로 수록한 책으로서 1451년에 조선봉건왕조의 춘추관(력사편찬기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되였다.

김종서, 정린지 등이 편찬사업에 참가하였다.

1454년에 출판된 《고려사》는 세가 46권, 지 39권, 렬전 50권, 년표 2권, 목록 2권으로 되여있다.

그중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부분은 세가, 렬전, 지이다.

세가에는 고려시기 력대왕들과 그들의 통치기간에 일어난 사변들이 년대기로 서술되여있으며 렬전은 왕실과 봉건관료들을 비롯한 900여명의 인물들을 취급하였다. 지에는 봉건통치기구와 그 연혁, 당대의 사회관계, 경제생활, 문물제도, 과학, 문화, 국방상태 등 여러 분야가 폭넓게 수록되여있다.

《고려사》는 우리 나라 판도우에 첫 통일국가로 존재하였던 고려봉건왕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사료이다.

《고려사》는 또한 중국, 일본, 몽골 등에 대한 자료와 동방의 일부 나라들에 대한 자료, 너진족을 비롯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한 일련의 종족들에 대한 자료가 상당한 정도로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10세기-14세기 동방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되고있다.

* * *

대성산의 력사유적들

평양의 대성산과 그 일대에는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의 력사유적들이 많다.

대성산성은 3~5세기의 고구려의 산성이다.

둘레가 7 076m, 겹성을 포함한 성벽의 총길이가 9 284m인 대성산성은 고구려산성가운데서 가장 큰 성의 하나이다.

성은 을지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련결하였으며 그안에 2개의 넓고 깊은 골짜기를 끼고있어 많은 사람들과 전투기재 및 물자들을 수용하고 보관할수 있었다.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쌓은 대성산성은 적이 쳐들어오기에는 매우 힘들고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성새였다. 성벽의 요소마다에는 성벽에 다가오는 적을 앞과 옆에서 치기 위하여 성벽돌출부인 치를 설치하였다. 성벽이 꺾이는 모서리에는 각루를 설치하였다.

대성산성의 일부

대성산성의 남문

성에서는 20개의 문터가 발견되였다.

현재 남아있는 대성산성의 남문은 가장 크고 중요한 성문으로서 그 높이는 19.5m이다. 성문은 튼튼하게 쌓은 축대, 그 량쪽에 잇달린 적대, 축대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남문의 축대와 적대는 다같이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석을 차곡차곡 포개여놓았다. 돌들은 세로방향으로 통이음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우로 올라갈수록 차츰 작은것을 놓았다.

대성산성에는 잉어못, 사슴못, 구룡못, 장수못을 비롯한 170개의 못이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못들가운데서 구룡못은 장방형으로서 못둘레에는 돌을 쌓고 바닥에는 진흙을 다졌다.

대성산의 남쪽기슭에는 고구려가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후 일정한 기간 왕궁으로 리용하였던 안학궁터가 있다. 38만 6 000㎡의 부지를 가진 안학궁은 사방 622m되는 네모난 성벽에 둘러싸여있었다.

대성산에는 고구려 광개토왕(374년-412년)시기에 건설된 광법사가 있다. 광법사는 1727년

대성산중생대화석

장수못

대성산고구려무덤떼의 일부

안학궁터

에 보수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폭격으로 파괴되였던것을 주체79(1990)년에 원상복구하였다.

광법사는 해탈문, 천왕문, 대웅전, 동, 서승당, 8각5층탑 등으로 이루어졌다.

건물들은 탑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되여있으며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웅장한 2층합각집으로 되여있다.

대성산일대에는 천여기의 고구려시기의 무덤이 있다.

대성산의 서북쪽, 남쪽, 동남쪽 기슭에 주로 분포되여있는 무덤들은 대부분이 돌칸흙무덤이고 일부 돌각담무덤도 있다. 무덤벽화들은 모두 채색화로서 당시 사회생활의 이모저모를 표현한 그림의 비중이 높다. 이 무덤들은 고구려사람들의

광법사

발전된 건축술과 회화술의 높이와 함께 당시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대성산의 남쪽기슭에는 중생대화석층이 있다.

화석층에는 황갈색으로 풍화된 조개화석이 암석표면에 드러나있다.

화석층에서 물고기지느러미화석과 함께 식물화석의 흔적도 발견되였다.

대성산중생대화석은 지질시대의 생물의 진화발전력사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되고있다.

이외에도 대성산에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력사유적과 유물들이 수없이 많다.

대성산과 그 일대의 력사유적들과 유물들은 귀중한 문화재보로 현재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대웅전내부

해탈문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